

# 썰렁한 유세장...속 타는 후보들

### 코로나19 여파 조용한 선거 분위기에 구호 붙이고 무음 순회 하나절 유세에 어르신 5명...민주·민생당 박빙 지역구는 북적

4·15 총선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됐지만, 코로나 19 영향으로 전남 농어촌 선거구는 조용하다 못해 썰렁한 분위기다. 총선이 열리는 4년마다 유세차량 선거방송이 읍내는 물론 시골 논밭까지 찌렁찌렁 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풍경이다. 후보자 상당수는 “도무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용한 선거운동에 힘겨워하고 있다. 다만 같은 농어촌 선거구라도 박빙 지역은 첫날부터 선거운동이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후보자는 이날부터 선거 유세차량 3대를 가동하지만 방송은 틀지 않고 있다. 단지 후보자 사진과 소속 정당, 후보자 이름, 구호만 차량에 써 붙이고 무음으로 빙

글빙글 선거구를 돌고만 있다. 후보자도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주요 길목에서 나홀로 인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자는 오늘 전남도청·영암삼호조전소 등 주요 길목에서 나홀로 인사만 하고 있고, 운동원들 역시 1~2명씩 주요 거점에서 인사를 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집권당 후보가 방송을 크게 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춰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캠프에서 모였다”며 “코로나 19 영향을 지켜보면서 선거 운동 방식에 변화를 줄지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의도치 않게 조용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후보자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통화에서 “오전에 약산고 금도 유세를 다녀왔는데 마스크를 쓴 어르신 5명 정도 유세를 지켜보셨다”며 “예전 선거 같으면 ‘어르신들 저 윤재갑이 왔습니다’ 하고 방송도 하고 노래도 틀텐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섭이나 농어촌 읍면 일부를 빼놓고 안 가면 어르신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 들고는 있지만 대체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세를 하더라도 제 공약을 홍보하기보다 코로나 19로 고생이 많으시다 위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선거구 윤영일 민생당 후보 측은 “용기를 내 거리 유세를 나섰다”고 전했다. 후보자는 장갑을 끼고 상인을 비롯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유세차량은 노래를 틀릴 듯 말 듯 켜고 선거구를 누비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프 관계자는 “대면접촉이 안

되고, 2m는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시민들도 확고한 것 같다”며 “올동팀, 선거방송 녹음 등 준비는 다 했는데 예년처럼 하면 손가락질 받을까 봐 조용히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로도 어르신들과 소통한다”고 했다.

민주당·민생당 박빙 구도로 쟁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그런대로 시골 벽적인 편이다. 민생당 황주홍 후보 측은 보성 등 선거구 장터, 역전을 중심으로 유세차량을 동원해 음악을 틀고, 후보자는 차량에 올라 직접 연설을 했다. 황 후보 측은 “아무래도 음악과 울동을 해야 이목이 쏠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성장에선 200~300명은 유세를 지켜본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승남 후보 역시 장흥읍 등에서 이날 운동원 30여명을 대동하고 출정식을 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임종석, 고민정 지원사격

### 서울 광진을 선거 출정식 “넘치도록 준비된 사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이번 총선을 통해 한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 후보가 자양사거리에서 개최된 출정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치에 작은 희망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선택을 해줄 것을 믿고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고 후보에 대해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가장 지근거리에서 일했다”며 “문 대통령의 철학, 정책, 숨결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넘치도록 배우고 준비했다”며 “그냥 준비가 아니라 넘치도록 준비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의 대항마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는 “과격 정치인”이라며 맹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오세훈과 광진은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다”며 “곧 왠지 떠날 사람으로 보인다. 제가 오세훈이었다면 두 번이나 선택받지 못한 중로에서 마지막 막방울까지 흘리며 선택받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또 향후 지원유세 계획과 관련해서 “마음 가는 후보에게 도움 되도록 할 생각이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며 “당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엄지 척’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고민정 후보(왼쪽)가 유세 지원을 위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부겸 “총선 승리 후 대권 도전”

### 대구 수성구 선거 출정식

대구 수성구 선거구에서 5선 고지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2일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출정식을 하며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도전을 시작한 포부가 있었고,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어보겠다는 꿈과 포부”라며 “(총선과 대구시장 선거) 두 번은 패배하고, 한 번은 승리해 이제 대

시 도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 인생의 전부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필코 승리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선진국 국민의 공포나 무질서와 달리 대구시민은 의연하고 질서 있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면서 “제가 이연하고 자존심 강한 대구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구를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총선 라운지

### 이용빈 “힘 있는 여당후보, 광산 시대 열겠다”

#### 광산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2일 “문재인정부와 동행하는 집권여당 후보로서 힘 있는 변화를 통해 더 큰 광산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새벽 5시에 광산구시 설관리공단을 찾아 구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환경직근로자와 새벽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나는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차별과 배제 없이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방역 전

쟁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를 지켜내야 하는 경제 전쟁이 그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동철 “코로나 실적 비정규직 생활 살피야”

#### 광산갑 후보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2일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학교 비정규직은 무임금 휴업에 내몰리고, 청소년 노동자들은 마스크 차별을 받는가 하면, 가장 먼저 무급휴가, 해고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보다 실적이 더 두려운 게 비정규직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커 2류국민 처럼 대접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처럼 이 시대 최대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권노갑, 박지원 선거사무소 방문 지지 호소

#### 목포시 후보

민생당 박지원(사진)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은 2일 “권노갑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박지원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권 전 고문은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야당일 때는 대변인, 집권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보수석, 정책수석, 비서실장,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

권 전 고문은 그러면서 “박 의원은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시민과 약속한 금권위패, 금요일에 목포 내려오고 월요일에 서울로 올라가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긋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목포 발전을 이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윤영일 “농어촌에 문화관광·복지·교육 확대”

#### 해남·완도·진도 후보

민생당 윤영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는 2일 “우리지역에는 재선 국회의원도 필요하다”며 총선출정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출정식은 열지 않고 군민 속으로 조용히 파고드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해남오시안노 펜션단지 조성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단지 조성 ▲진도 투자선도지



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4년 전 국회의원 당선 이래 지금까지 군민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농어업 속원사업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복지·교육확대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인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OREAN Fire & Marine Insurance

SGI서울보증

AXA AXA 다이렉트 reinsurance | standards

AIG

The K 손해보험

NH손해보험